

KDC(한국십진분류표) 4판에 대한 제언

김 자 후*

〈목 차〉

- | | |
|---------------------------|-------------------------|
| I. 서 론 | IV. 본표상의 문제점 |
| II.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 권고사항 | V. 상관색인의 문제점 |
| III. 보조표(조기표)의 문제점 | VI. 결론 및 제언
Abstract |

I. 서 론

오늘날 도서관 분야에 있어서 컴퓨터와 통신수단의 영향력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으며 향 후 도서관 소장정보의 주도권이 인쇄매체에서 전자매체(디지털정보)로 넘어가게 되면, 즉 디지털도서관이 되면 기존의 전통적인 문헌분류표나 편목규칙 그리고 기타 색인 및 검색도구들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쩌면 그것은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전자매체가 주도하는 디지털도서관 환경이 되려면 아직도 10년이나 20년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가령 디지털도서관 중심이 된다 할지라도 인쇄매체정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¹⁾ 필자를 포함하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 Walt Crawford & Michael Gorman. 1995. *Future libraries: dreams, madness & reality*.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pp. 178-181.

여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기존의 인쇄매체를 주된 분류 대상으로 삼아 편찬되어 온 대부분의 현행 문헌분류표들의 경우 어느 시점까지는 기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경우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컴퓨터의 힘을 빌어서 분류기호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배정하거나 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분류표에 컴퓨터 기술을 적용해 온 대표적인 예로서는 첫째로, 문헌분류표를 전자매체인 CD-ROM에 수록함으로써²⁾ 색인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과, 다른 한편으로 아직 시험단계 이기는 하지만 「분류지원 전문가시스템」이라고 하는 분류업무를 돕는 시스템들의 활발한 개발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주체가 되어 분류함에 있어서의 보조수단에 불과하기때문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t)분야가 발전하여 실제로 기계(컴퓨터)가 인간의 지적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문헌분류의 주체가 여전히 인간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하여 볼 때 전통에 바탕을 둔 오늘날의 문헌분류표의 경우 당분간은 본질과 기본체제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일한 표준분류표인 KDC(한국십진분류표)도 예외는 아니어서 3판이 나온지 16년만인 1996년에 4판이 출판되었다.

필자는 학생들에게 「문헌분류연습」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지난 1996년 겨울방학 동안 KDC 4판을 가지고 강의준비를 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1997학년도 제1학기에 강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 실용성이 결여된 부

2) 대표적인 예는 DDC로서, CD-ROM에 담긴 DDC를 전자류이(Electronic DDC)라고 하여 1993년에 초판(DDC 20판 대상)이 나온 이래 1996년에는 21판의 인쇄매체 출판물과 함께 그것의 전자판이 나와 있다.

분들이 발견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었으므로 이를 지적해 내고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KDC의 발전에 일조하고자 하는 바이다.

다만, 본고에서 조사·연구된 내용은 분류표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단지 강의와 관련된 부분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분류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한다.

II.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 권고사항

1. 신·구판 간의 상이점에 관한 내용들의 불비

분류표가 개정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기존 장서에 대한 재분류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판과 개정판간에 상호 차이가 있는 분류항목들의 리스트, 즉 구판에는 있었으나 신판에는 없어진 항목들, 재배치(Relocation)항목들의 조건표, 그리고 신판에만 신규로 등장한 항목들의 리스트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2. 해설부문 불비 및 주기설정 미흡

DDC를 비롯한 대부분의 분류표에는 분류표를 사용할 때 사용자들의 주판에 의한 제각기 다른 판단과 해석에 의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상세하면서도 명료한 「사용설명서」를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그와 더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구체적인 주기(note)를 설정해 놓고 있다. 사용설명부분과 주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쪽이 충실치 못하면 다른 한 쪽이 이를 보완해 주어야 한다.

KDC의 경우 3판은 분류분과위원장인 이병수에 의해 별도의 단행본으로 출판된 바 있으나,³⁾ KDC 4판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 나와 있지 않다. KDC

3) 이병수. 1981. 한국십진분류법 해설. 서울: 한국도서관 협회.

4판의 경우 서문에도 해설(사용법 설명)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해설과의 상호보완관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 주기(note) 설정도 미흡한 편이다. 분류표 편찬 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이라면 가능한 한 많은 곳에 구체적인 주기를 설정하여야 하며, 「해설」은 주기(note)만으로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과 항목들에 대해서 보충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DDC의 경우도 세부적인 많은 주기가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필자의 박사학위논문⁴⁾도 결과적으로는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주기들이 설정되게 되었다. 아무튼 KDC 4판은 주기의 부족과 해설(사용법 설명)의 불비로 인하여 사용자들 개개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 비실용적인 분류표라 할 수 있다.

3. 양자택일 및 조기성과 관련된 문제점

대부분의 문헌분류표에는 특정 분류항목에 있어서 동일개념에 2개 또는 그 이상의 분류기호를 설정해 놓고서 개개 도서관의 사정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KDC의 경우는 표준구분(조기표 1)의 전개내용을 토대로 하여 총류(100)⁶⁾을 비롯한 본표상의 주제항목들이 표준구분의 해당 항목의 개념과 일치하는 경우⁷⁾에는 양측 항목에 공히 「양자택일」을 위한 주기를 설정⁸⁾해 놓으므로써 일관되게 분류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또한 기호에 있어서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조기성(助記性)을 가지게 하므로써 보다 유용한 문헌분류표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데, KDC 4판의 경우 서지(총류: 016, 표준구분: 026)⁹⁾를 비롯한 몇몇 항목들에 있어서 조기성이

4) 김자후. 1996. 범문학 분야의 문헌분류법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학원.

5) 보편적으로 일반도서관과 전문도서관에서의 입장 차이를 의미한다.

6) 주로 총류(100)의 외적형식 항목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 서지, 사진, 수필, 연속간행물, 연감, 단체, 박물관, 전집 등

7) 총류(100)를 제외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법령, 역사 및 지역구분 등이 있다.

8) 이를 경우 총류를 비롯한 「본표」쪽에서는 「주제별…」 형식의 항목을 설정한다.

9) 더욱이 용어에 있어서도 서목(표준구분)과 서지(총류)로 일치하지 않는다.

결여된 경우가 발견되어 진다. 이러한 것들은 우수한 색인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뒤에 논의되는 바와 같이 KDC 4판의 경우처럼 보조표(조기표)의 항목들이 그나마 색인에서 제외되어 있다면 사용 상 크게 불편할 것이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조기성이 결여된 또다른 한 예로는 530.072(연구 및 실험시설)과-074(표준구분)가 있는데 이 경우는 분류표가 개정되면서 표준구분 부분만 개정하고 530.072쪽은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된다.

4. 상관색인에 관한 문제점

분류표에 있어서 질적으로 우수한 상관색인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언어에 대한 수준높은 통제어휘집(주제명표목표 또는 시소러스)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 일은 대체로 색인전문가들의 몫이라 할 수 있어서 그동안 뚜렷한 통제어휘집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볼 때 분류표의 상관색인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오늘날의 통제어휘집들은 단위항목을 취급함에 있어서 주제단위는 거의 사라지고 LCSH(미 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¹⁰⁾의 예에서와 같이 개념(핵심어 : keyword) 단위의 시소러스체제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문헌분류표의 색인들도 시소러스체제를 갖춘 훌륭한 상관색인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Moys의 법률분류표¹¹⁾를 들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편승하여 시소러스체제를 갖춘 통제어휘집(주제명 검색요어집)¹²⁾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주제명 검색요어집도

10) Library of Congress. 1993.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16th ed. Washington, D. C. : Cataloging Distribution Services, Library of Congress.

11) Elizabeth M. Moys. 1982. *Classification Scheme for Law Books*. 2nd ed. London : Butterworths.

12) 정보관리학회. 1994. *주제명 검색요어집*.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KDC(4판)의 경우 그것의 개정작업이 주제명 검색요어집이 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므로 해서 도치표목이 그대로 나타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색인의 명칭에 있어서도 열거색인(적접색인: specific index)¹³⁾의 성격인데도 굳이 상관색인이라고 명명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DDC처럼 동의어를 추가하여 검색에 편의를 도모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앞서 논급되었듯이 KDC(4판)의 색인에 있어서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는 보조표(조기표)의 항목들을 색인에서 제외 시킨것으로서 이것은 크나 큰 과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5. 1 기호조합방식을 가급적 많이 채택하고 동시에 계층적 분류표를 지향해야 한다.

정필모 교수는 조기표(보조표) 중 문학형식구분, 종교공통구분 언어공통구분 등 주로 특정 주제분야(주류)에만 적용되는 것들은 해당 주류하에 내부표로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¹⁴⁾, 필자도 여기에 동의하는 바이며 이외에도 필요한 곳은 내부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오늘날 대부분의 문헌분류표들은 전산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내부에 부가표를 많이 설정하는 추세인데 대체로 뒤에 논급될 「Centered Entry」항목에서 「기본기호(Base no.)+부가기호」의 조합형식을 취하게 된다.

또한 분류표는 계층적이어야 하며 이와 같이 일차적으로 분류기호 체계가 계층적이었을 때의 편리성은 분류표로 하여금 기계가득 record의 조직을 위한 근거로서 이용할 경우에 중요하다.¹⁵⁾ 다시 말해 컴퓨터에서 탐색범위를

13) Authur Maltby. 1975.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Libraries*. 5th ed. London : Deutsch.

14) 정필모. 1995. 국제백진분류법연구:인문학분야편.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pp. 29-30.

확대 또는 축소하려면 즉, 브라우징이 가능하려면 기호체계의 계층구조 뿐만 아니라 주제개념도 기호체계에 맞게 논리적, 내용적으로 반드시 계층구조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5.2 「Centered Entry」형식의 항목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Centered Entry」란 “기호들에 걸쳐서 적용되는 특정 주제를 표현한 한 저록¹⁶⁾을 의미하며 「372-374 교육수준」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것은 Centered Entry하에 전개된 세부 주제들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시킬 어떤 내용들¹⁷⁾을 효율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것은 분류표가 방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표를 간소화하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KDC(4판)에도 Centered Entry 방식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허다한데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예) 981 아시아 지리

「910과 같이 지리구분하고, 980.1-.8과 같이 세분한다」

를

981-987 각 지역별 지리

「910-979와 같이 지리구분하고, 필요시 980.1-.8과 같이 세 분한다」

로 고치고 동시에 기호 조합방식을 언급하게 되면 982에서 987까지의 주기사항들을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15) Brian Buchanan. 오동근 역. 1989. 문헌분류이론. 서울 : 구미무역(주) 출판부, p. 93

16) Melivil Dewey. 1996.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 vol. 1. Introduction & Tables. 21th ed. New York : forest Press. p. lviii.

17) 대체로 부가표 또는 내부표가 마련되고 이것의 적용방식과 범위 등을 기술한 지시주가 뒤따른다.

Ⅲ. 보조표(조기표)의 문제점

1. 표준구분표(조기표 1)

표준구분표상에 전개된 항목들이 본표상에서 각 주제(주류, 강목 등 대체로 큰 주제)하의 총류부분에 전개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경우 표준구분의 전개 내용이 각 주제의 총류부분에 그대로 전개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 주제의 총류부분에 표준구분의 전개내용과 각 주제에만 해당되는 고유항목들¹⁸⁾, 즉 표준구분에 없는 항목들이 함께 뒤섞여 전개되어 있을 때에는 적용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명확한 후속조치(해설이나 주기사항)¹⁹⁾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만약 그대로 두게 되었을 때 매우 불합리한 분류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340(정치학)의 경우 총류부분에 정치철학 및 이론(340.1), 정치사상(340.2), 정치사 및 정치사정(340.9)으로 전개되어 있는데 이를 경우 표준구분 전개사항과는 무관한 항목인 정치사상(340.2)은 다른 주제, 즉 341-349내의 적절한 자리로 이동시키던지 아니면 정치학에 대한 표준구분 적용을 위하여 「340.01-.09를 사용하라」라는 지시주를 설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그대로 두게 되면 「철학 및 이론」과 「역사」를 제외한 표

18) 예를 들면 법학(360)의 경우 법사회학(360.13), 비교법학(360.199), 법령집(360.2), 개정법(360.3)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것들은 표준구분의 전개항목들과 뒤섞여 법학의 총류부분(360.1-.9)에 전개되어 있다.

19) 이를 경우의 해결방안으로서 본표 쪽에 표준구분의 해당 항목들과 각 주제의 고유항목들간의 계위를 달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면 「표준구분은 0을 하나 더 추가하여 360.01-360.09와 같이 전개하라」와 같은 지시주를 설정하는 일일 것이다.

준구분 항목들이 340.02-0.8에 모이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각 항목별 문제점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024에는 종이매체의 특수자료(그림, 지도 등)와 입체자료(지구의, 모형 등)만 취급하고 있는데 종이매체 이외의 자료들²⁰⁾을 배정하기 위한 항목의 설정이 필요하다.

-026은 색인 등과 같은 2차자료들을 위한 항목인데 여기에 서목과 다이제스트, 리뷰, 서평 등의 항목들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05(연속간행물)에 「논문집을 포함한다…」라는 주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주기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연속간행물은 학술지로서 그 내용(단위기사)이 논문일 수 있으나 단행본 체제의 논문도 있기 때문에 서로 뒤섞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것은 총류(연속간행물:050)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05에 「연속간행물」항목 외에도 「신문」을 추가하면 사용상 편리할 것이다.

-069(박물관)에 「지역구분하라」는 지시주가 설정되어 있는데 표준구분항목들은 주제별로 세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타당치 않다. 이러한 「지역구분」은 언어구분과 함께 보편적으로 총류(100) 항목들의 세분·전개수단이 되는데 이것은 총류(100)의 경우 주제세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안해 낸 구분·전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지역구분」은 총류의 069(박물관)쪽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경우 특정 지역(국가)하에서 주제별로 유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도 있을 것이며 이때에는 주기사항과 함께 보다 상세한 해설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076의 문제집, 해답집은 -077(시험)쪽으로 이동시켜 「문제집, 해답집을 포함한다…」라는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실무적용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09의 「-0901~09069, 즉 시대(연대)구분」의 경우 불합리하게 전개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3세기는 「1200-1299」가 아니라 「1201

20) 예를 들면 마이크로필름 등 시청각 자료들과 전자매체자료(디지털 자료)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전자매체자료는 향후 빠른 속도로 발전될 것이다.

~1300」이 되며 이러한 연대구분표가 합리적으로 전개된 것으로서는 정필모 교수의 100진분류법을 들 수 있겠다.²¹⁾ 또한 다른 대부분의 문헌분류표에서는 시대구분을 표준구분에서 독립시켜 별도의 표를 마련하고 있는 것에 반해 KDC의 경우 시대구분이 표준구분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DDC의 체재를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별도의 독립된 표를 마련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호길이가 짧아지는 등 장점이 있으므로 KDC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지역구분표(조기표 2)

지역구분표의 전개수준이 본표의 「910-979」의 내용보다 상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표 내에서의 지역구분 지시사항을 보면, 「지역구분표를 적용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910-979와 같이 지리구분하라」라고 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역구분표(보조표)는 본표를 비롯한 분류표 내의 어느곳에 전개된 지역구분보다도 상세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다면 구태여 지역구분표(보조표)를 마련할 필요없이 「분류표 사용법」에서 지리(지역)구분이 필요한 곳(항목)은 반드시 「910-979와 같이 지리구분하라」라고 명시하면 될 것이다. KDC의 이러한 방식은 DDC를 따른 것으로서 DDC의 경우 16판까지는 역사(900)의 지리구분을 적용하여 「Divide like 930-999」와 같은 지시에 의하여 지리구분을 참가하도록 하였다.²²⁾ 그러나 DDC도 17판부터는 지리구분이 Table 2에 DDC 보조표 중 가장 방대한 조기표로서 전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KDC는 아직도 개선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KDC 4판의 가장 큰 결점 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21) 정필모, 앞의 글, pp. 77-79.

22) Melvil Dewey. 1958.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6th ed. New York: Forest Press.

3. 지역구분표(조기표 2)

언어구분표의 경우 러시아어(928 : 요목단위)는 스페인어, 이태리어 못지 않은 비중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보다 상위계열의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것은 문학류(러시아어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문헌분류표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²³⁾

NDC → 8 (주류 개념)

ICC → 19 (주류개념)

BC → PW (영·불·독일어와 동일계위)

CC → 14 (주류개념)

그리고 DDC 등 대부분 분류표들의 「사용설명」에 의하면 ‘지리(지역) 구분표를 적용하라’라는 지시주가 없는 항목을 지리구분할 경우에는 「주제+09+지리구분기호」의 형식으로 조합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지리구분표가 표준구분표에 예측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서로 다른 개념이 동일기호를 가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인데 KDC에는 이러한 적용을 지시하는 구체적인 설명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라도 다음 예에서와 같이 「해당주제의 역사」와 동일한 분류기호가 되어서 문제가 된다.

예) 한국의 특수교육 → 379.0911

한국의 특수교육사 → 379.0911

또한 문학형식구분표, 언어공통구분표, 종교공통구분표는 대체로 각각 문학

23) · もり きよし, 1995. 日本十進分類法 : 本表編. 新訂 9版.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p. 32.
· Henry Evelyn Bliss, 1977. *Bliss Bibliographic classification*. 2nd ed. ed. by J. Mills and Vanda Broughton. London : Butterworths.
· 정필모. 앞의 글. p. 99.
· S. R. Ranganathan. 1989. *Colon Classification. vol. 1. Schedules for Classification*. 7th ed. revised and ed. by M. A. Gopinath. New Delhi : UBS Pub. p. 68.

류(800), 언어류(700), 종교류(200)에 적용되는 조기표이므로 공히 해당 주류내에서 내부표로 설정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드물기는 하지만 이들을 타주제 아래에 전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수 주제구분」 형식의 지시주를 설정하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KDC에는 초판부터 사람에게 관련된 공통보조표가 일절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현행 다른 분류표에 나와 있는 것으로서 실무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이라는 피구분체는 구분원리(직업, 연령, 성별, 계층, 신분, 인종, 민족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모든 구분원리를 합리적으로 총망라하는 하나 정도의 공통보조표만 마련해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본표 (주분류표)상의 문제점

1. 총류(100) 부문

논문작성법(802.066)은 총류의 연구일반 및 방법론(007)하에 설정하던지 아니면 양자택일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박물관학 (069)의 경우 「역사일반」으로 이동시켜 국별구분하고 동시에 세목으로 주제별 박물관학 항목을 설정한 다음 「전기」에서와 같이 표준구분을 적용하여 양자택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²⁴⁾ 이들 경우 국별구분과 주제별구분은 사실상 양자택일의 성격이므로 사용상의 편의를 고려한다면 양자택일의 주기설정이 필요하며 또한 동시에 국별구분한

24) 양자택일 장치가 필요한 곳은 표준구분 항목들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본표내에서 개념상 표준구분의 그것들과 일치하는 항목들 가운데 서목, 수필집(040), 연속간행물(050), 신문(070)등 외적형식의 성격을 지닌 총류의 모든 항목과 기타 일반주제에서도 가끔 발견되는 항목들로서 이러한 양자택일을 설정하는 이유는 개개 도서관의 사정(예 : 신문의 경우 일반도서관은 「070(총류)+주제」, 전문도서관은 「주제+05(표준구분)」의 조합방식을 취함)을 감안한 것이다.

다음 주제구분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한 대표적인 항목은 종류의 「서목」이며 이외에도 해당 항목들이 많이 발견된다.

시스템(003)하의 주기사항내용과 전산학(004)하의 004.2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동시에 전산공학(566)하의 시스템 관련항목(566.2)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혼잡스럽다. 필자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003(시스템)은 「전산학」과는 무관한 시스템관련 소프트웨어를 의미하고, 004(전산학)은 하드웨어를 의미하므로 004.2(시스템 관련항목)은 시스템의 하드웨어에 관한 문헌을 분류하도록 한다. 한편 004 및 005(프로그램)와 566(전산공학)은 양자택일이 설정되어 있는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566쪽을 추천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검색의 경우 005.74보다는 025.23쪽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신문(070)에 해당하는 내용 중 같은 표현이라도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 다음의 예와 같이 조금씩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예) 중국신문(중국에서 출판된 신문) → 지역(지리)별 구분

중국신문(중국어로 쓰여진 신문) → 언어(국어)별 구분

중국신문(중국에 관한 신문) → 주제(중국:912)별 구분

이러한 구분이 필요한 곳은 신문 뿐아니라 서목(014, 015, 016), 수필집(040), 연속간행물(050)등 외적형식의 성격을 지닌 종류의 모든 항목이 해당되며 공히 주기를 통하여 구체적인 구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사회과학(300) 부문

통계학(310)에 있어서 각 지역의 일반통계(311-317) 항목의 경우 KDC 4판에는 한국일반통계(311.1)의 예에서 보듯이 지역(또는 국가)별로만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통계+지역+주제(000-999)」의 조합형태를 취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동시에 「통계+주제+지역」의 형태도 취할 수 있도록 하

여 양자택일의 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인구통계(319)에 있어서도 「319.1-319.99」의 내용을 「319」항목의 부가표(또는 내부표)로 간주한 다음 이것을 앞서 일반통계에서와 같이 전주제영역(000-999)처럼 취급하여 「인구통계+지역+부가표의 부가기호」와 「인구통계+부가기호+지역」의 조합방식을 마련한 다음 양자택일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KDC 4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않았지만 이러한 조치, 즉 2가지의 조합방식을 마련한 다음 동시에 양자택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곳은 통계학부문 뿐만 아니라 법률학, 행정학, 정치학 등과 같은 사회과학 분야를 비롯하여 상당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각 지역의 일반통계(311-317)하의 주기예에서 경찰행정통계는 350.7(경찰행정)이 아니라 표준구분의 통계(-023)나 통계연감(-059)를 조합한 형태(350.7023 이나 350.7059)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319.09(각국 인구통계)와 319.99(국적별 인구통계)의 관계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법학(혹은 법률학)은 학문적 관점에서 보면 기초법학분야와 실정법(국제법, 국내법)분야로 대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DC 4판에는 기초법학분야의 경우 그것의 일부만이 그나마 총류부분에 전개되어 있어서 지나치게 실정법 위주로 전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의 법체계는 대륙법체계를 토대로 하고는 있지만, 영미법의 특성있는 법영역들이 상당부분 채택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KDC 4판에는 거의 전적으로 대륙법 본위로 전개되어 있을 뿐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법체계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국가별 법률학 문헌을 분류하는데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021.3(도서관법)은 도서관법에 관한 문헌을 도서관(020)하에 모이도록 한 조치, 즉 특정 주제하에 해당 주제법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 KDC 4판에는 대부분의 주제들은 제외된 채 방송법, 도서관법 등 유독 몇몇 주제에만 이같이 설정되어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368(기타 제법:주제법)에서 그 아래의 지시주에 따랐을 때 도서관법은 368.02(기타제법:주제법+도서관학) 또는 020.23(도서관학+표준구분의 법률)이 되어

앞서 언급된 020(도서관학)하의 021.3(도서관법)과 020.23은 둘 다 주제를 앞세우는 동일한 방식이므로 이중으로 나와 있어서 불합리해 보인다. 또한 앞서 통계학(310)에서처럼 법학(360)에서도 각국법(369:외국법) 아래에 「법학+각국별+주제별법(362-368)」 또는 「법학+주제별법+각국별」의 일관된 조합방식을 마련한 다음 양자택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KDC 4판에는 각 주제별법 항목(362-368)하에도 369(각국법) 항목처럼 각국법을 분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²⁵⁾ 양자택일을 지시하는 구체적인 주기사항이 없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3. 기타 분야(언어, 문학, 역사)

언어(700)에 있어서 703(사전)의 경우 각 언어 아래에 언어사전(7△3) 항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헌을 분류하기 위한 항목인지 알 수가 없으며, 또한 「710.02-.8」의 전개내용은 대체로 다른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710)하에만 전개되어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바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는데 그 해결책으로서 「710-790 각 언어」 항목을 설정하고 그 아래에 「710.02-.08」의 전개내용을 내부 보조표(또는 부가표)로 마련한 다음, 「모든 언어(710-790)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주기를 달아주면 해결될 것으로 본다. 또한 2개국어로 된 사전의 구체적인 분류방법이 710(한국어)하에만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각 언어(720-799)하의 해당항목(예: 일본어 사전→733) 아래에 「2개 국어사전은 「713.2-.9」와 같이 분류하라」라는 지시주를 설정하던가하여 일관되게 분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740(영

25) 각 주제별법 항목(362-368) 가운데서 행정법(363)과 사법제도 및 소송법(367)은 그나마도 각 국가별법을 분류하는 항목이 나와 있지 않을 뿐아니라 나와 있는 항목의 경우에도 해당 주제별법의 각국법 해당위치가 제각각이어서 일관성이 없다.

어)하의 「741-743」전개항목은 비단 영어 뿐아니라 「750-780」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750-780」항목을 마련한 다음 주기를 달아 주면 해결될 것이다.

문학(800)의 경우 장르(문학형식구분)별로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수백권 또는 수천권의 국내소설들이 단지 도서기호에 의해서만 구분된 채 서가에 꽂혀 있어서 이들을 더욱 세분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를 경우 DDC처럼 kind, features 등의 구분요소들과 조합시키면 무난할 것이다. 그리고 문학전집이나 문학에 관한 역사·평론 문헌들을 언어별, 문학장르(문학형식구분)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그 해결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호조합방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810-899」 각 언어의 문학」항목을 810(한국어) 앞에 마련하고 기본적인 조합요소(예: 전집→08, 역사·평론→09)를 부가기호로 설정한 다음, 언어별 문학전집(또는 역사·평론), 언어별 문학 장르별 전집(또는 역사·평론)의 조합방식을 정하여 예를 제시한다.

예: 영국문학(840) { 영국문학 전집(840.8)
영국문학 비평(사)(840.9)
영국시 전집(841.08)
영국시 비평(사)(841.09)

그리고서 문학전집/언어별→8△0.8, 문학비평(사)/언어별→8△0.9, 시전집/언어별→8△1.08, 시비평(사)/언어별→8△1.09²⁶⁾ 등 대표유형들을 색인에 표기한다. 890(기타문학)의 경우는 해당기호들(예: 러시아 문학→892.8)을 기본기호로 하는 조합방식을 적절한 장소에 설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809(문학사·문학평론)하에 세계소설사(809.3)와 같은 문학장르별 세계사의 예시주를 설정해 놓으면 이용에 편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사(900)의 경우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다른 관

26) 시 뿐만 아니라 다른 문학장르들에 대한 것들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런부분에서 논급된 바 있다. 다만 제외되었던 항목인 전기(990)를 보게 되면 「991-997: 지역별 전기」와 「998: 주제별 전기」가 나와 있는데 이들은 성격상 양자택일이라고 판단되므로 양자택일의 주기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참고로 DDC에는 지역별 전기(KDC의 전개항목) 대신에 주제별 전기가 나와 있어서 KDC에 비해 논리적·실용적으로 전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V. 상관색인의 문제점

KDC 4판의 색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앞서 이미 개관된 바 있으나 여기서는 실제 분류표 상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최근의 분류표 색인들은 NDC의 경우처럼 그것이 비단 열거색인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시소러스체제를 쫓아 간다는 취지에서 도치표목을 없애고 있다.²⁷⁾ 따라서 KDC 4판의 경우에도 도치표목을 없애되 사용 시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해결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기선에 의한 표시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변경 전	변경 후
도서관/공립	도서관 공립
도서관/교육기관	교육기관
도서관/국립	국립
도서관/기타 교육기관	기타 교육기관
도서관/보존	보존
도서관/사립	사립
도서관/이동	이동
도서관/일반	일반

27) 모리·키요시, 1995. 日本十進分類法: 相關索引編. 新訂 9版.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pp. 43-435.

도서관/전문대학	전문대학
도서관/특수	특수
도서관/학교	학교

그리고 도치표목문제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 본표함목기호와 보조기호를 조합한 것들까지도 간간히 색인에 열거되어 있는데 만약 모든 경우의 조합기호를 전부 열거한다면 색인이 엄청나게 방대해질 것이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KDC 4판에는 일부의 예만 나와 있는데 조합형식을 색인에 나타내지 않더라도 색인 이용시에 거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색인에 나와 있는 「법률서목:360.16」은 특정주제(본표기호)와 보조기호의 결합형식으로서 본표에도 나와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색인에 「서목/주제별:016」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로서 「논산군(지리):981.79」의 경우도 본표상의 지리(綱目) 항목(아시아 지리:981)과 지리구분표에 전개된 항목(한국 논산군:179)을 조합한 것이다.

· 앞서 동의어를 색인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서목(분류표상의 표목) 뿐만 아니라 그것의 동의어(분류표상에 없는 용어)인 「서지」도 색인에 열거하므로써 이용상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 본표내의 항목명칭(표목)이 색인어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비롯하여 여러 유형의 착오들이 있는데 몇 몇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색인상의 「순교자 전기:230.99\998.23」는 본표에 「전기(기독교인)」로 나와 있어서 상호 용어가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순교자 전기」가 다른 종교에는 나와 있지 않고 유독 기독교에만 나와 있어서 불합리해 보인다. 또한 색인상의 「탐험기:980.28」은 본표에는 980.29로 나와 있음.

한국어(수필집:710.4)²⁸⁾를 제외한 「다른 언어에 관한 수필집」에 해당하는 색인항목이 일절 없어서 불합리하므로 그 해결책으로서 「수필집:710.4」를
 28) 「수필집:710.4」는 내용상 한국어에 관한 수필집만을 의미하므로 모든 언어를 망라하는 항목이 될 수 없다.

없애고 그 대신에 「수필집(각 언어에 관한) : 7△0.4」를 마련하면 될 것이다. 다만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한국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들에 관한 수필집」에 해당하는 분류항목을 본표상에 먼저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경우 「710.02-8」를 모든 언어에 적용되도록 내부표(또는 부가표)로 설정하게 된다면 수필집(각 언어에 관한)뿐만 아니라 이 표의 모든 항목들에 대한 색인을 동일한 방식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학장르로서의 수필문학을 위한 「수필(문학) : 8△4」 항목을 색인에 추가할 필요가 있겠으며, 그리고 「수필집/각국어 : 04△」의 경우는 여러 주제분야를 망라하여 쓰여진 논설 성격의 수필이면서 특정 언어로 쓰여진 것을 의미하는데 KDC 4판에는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새로 추가될 색인 항목인 8△4(문학의 장르로서의 수필/언어별)와의 구분이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VI. 결론 및 제언

국내 유일의 표준분류표인 KDC의 새로운판(4판)이 도서관계 종사자들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속에서 16년만에 햇빛을 보게 되어 관련 학계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는 곧 바로 이를 입수하여 강의 준비차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된 바 그것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차제에 KDC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획기적으로 발전하는데 요구되는 몇몇 필요조건들을 고찰해 보았는데,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본표에서 용어 및 전개상의 일관성이 결여된 곳들이 어느 정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문학류에 있어서는 실용성에 입각한 보다 더 다양한 기호 조합방식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양자택일의 설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항목들이 많이 발견되며 또한 조기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3. 보조표 항목들이 색인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분류표를 사용할 때 크게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지리구분표가 상세하지 않으므로 해서 전혀 본래의 역할(보조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4판에서 달라진 사항들 즉, 신판에 없어진 항목들의 리스트, 재배치항목 조건표, 신규항목들의 리스트를 마련하여야 한다.
5. 해설부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뿐아니라 그것과의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주기(note)를 충분히 마련함으로써 분류자 개개인의 자의에 의한 서로 다른 판단·결정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야 한다.
6. 보다 발전적인 유용한 분류표가 되려면 기본기호, 부가기호, 내부표 등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기호의 조합방식이 채택되어야 하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곳에는 소위 「Centerd Entry」형식이 나타나야 할 것이며, 컴퓨터의 도움을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시소러스체제의 질높은 상관색인을 구비한 계층적인 분류표를 지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A Study on Reform Measures about the KDC(4th ed.)

Ja-Hoo Kim*

〈Abstract〉

KDC(Korea Decimal Classification), which is representative literature classification scheme in Korea, was revised and published in 199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reform measure after detecting out issue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KDC 4th ed. through the result of lecture.

The outline of suggestions are as follows : (1) There are not all items of auxiliary tables in relative index. (2) Auxiliary table 2 (Geographic Areas) is not detailed. (3) The manual for the shake of efficient usage is nonexistent and notes are poor in content. (4) Sufficient mnimanix and alternatives must be setted up for efficiency usage. (5) Some parts of the main schedule are disorder and not logical.

* Profess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wangju Univ.